

# 한국군의 PKO 인도적 지원 분야로 확장을

## 기고

하영재

한림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원  
주임교수·에비역 준장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은 세계 각국이 참여해 갈등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군은 그동안 평화유지활동을 전개하면서 다양한 성과를 이루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변화하는 국제 안보환경 속에서 한국군의 평화유지활동은 단순히 군사적 평화유지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폭넓은 인도적 지원 분야로 확장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인도적 지원은 갈등지역에서의 인간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군사적 평화유지활동은 갈등을 막고 안정을 도모하는 게 주된 목표이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인도적 지원 역시 필수적이다. 한국군은 이미 여러 공병 및 의료 지원을 통해 현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해 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군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도적 지원으로 갈등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재건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도적 지원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의 모범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나 기술적 협력만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갈등지역에서 직접적인 인도적 지원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더 큰 공헌을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이 경제대국을 넘어 인류애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서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인도적 지원을 통한 평화유지활동의 확장은 국내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군은 평화유지활동으로 군사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군이 무력집단이 아닌 평화와 인간안보를 보호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이는 군의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군의 역할과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군의 인도적 지원 분야 확장은 국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전통적인 평화유지활동이 군사적 측면에 집중돼 있다면, 한국은 인도적 지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평화유지 모델을 제안할 수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글로벌 평화유지 노력에 기여하는 결과를 낼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군의 평화유지활동을 인도적 지원 분야로 확장하는 것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환경에 대응하는 필수 전략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국내외에서 군의 위상·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지면에 게재된 글들은 본지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 국방일보

발행인 **채일** 편집인 **기국간**

1964년 11월 16일 창간(일간) | 2010년 7월 1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337 | 인쇄인 **장대환**

독자관리 **발송문의**(구독신청 주소변경) 02-2079-3851~2 | 팩스 02-757-9309  
인터넷 **kookbang.dema.mil.kr** | 04353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   |                             |
|----------------|---|-----------------------------|
| <b>편집팀</b>     | 편집 02-2079-3770-85<br>교열 02-2079-3791-4 | 군947-3770-85<br>군947-3791-4 |
| <b>취재팀</b>     | 취재 02-2079-3730-42<br>사진 02-2079-3760-3 | 군947-3730-42<br>군947-3760-3 |
| <b>디지털콘텐츠팀</b> | 02-2079-3710-4                          | 군947-3710-4                 |
| <b>광고문의</b>    | 02-2079-3124                            | 군947-312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할머니, 만나러 갑니다

## 조명탄

홍지민  
서울신문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음부터 치매를 앓았다. 조금씩 아픈 기억도 잊었다. 손자를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래도 손자는 할머니를 생각하며 태극마크를 달았고,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1년 미뤄져 2021년 열린 도쿄 패럴림픽에 도전해 남자 75kg급(K44)에서 패자부활전을 거쳐 동메달을 따내며 한국 최초 패럴림픽 태권도 메달리스트가 됐다.

대회가 끝난 뒤 손자는 동메달을 목에 걸고 할머니가 있는 요양원을 찾았다. 할머니는 손자를 알아보지 못했고, 죄책감을 지우지 못한 채 몇 개월 뒤 세상을 떠났다.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손자는 급히 요양원을 찾았으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임종 전 할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다.

3년이 흘렀다. '2024 파리 패럴림픽'이 개최됐다. 지난해 10월 아시안 패러게임에서 한국 최초로 태권도 금메달을 땀던 터라 자신감이 충만했다. 할머니

니를 모신 선산을 찾았다. 도쿄 때 따지 못했던 금메달을 목에 걸고, 또 할머니가 생전 좋아한 소고기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했다.

대회 16강은 부전승으로, 8강은 8-1로 가볍게 통과했다. 멕시코 선수와의 준결승에선 경기 초반 7-0으로 앞서다가 추격을 허용하며 따라잡혀 연장 혈투 끝에 8-10으로 졌다. 8강에서 세르비아 선수와 겨루다가 무릎을 다친 여파가 컸다. 이를 악물고 나선 동메달 결정전에서는 카자흐스탄 선수를 상대로 경기 중 후반 공격을 거듭하며 점수를 따내 7-1로 꺾은 뒤 경기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제대로 걷지 못해 경쟁 선수들의 부축을 받고 시상대에 설 수 있었다.

지난달 31일 파리 패럴림픽 태권도 남자 80kg급(K44)에서 동메달을 따낸 주정훈(30) 선수 이야기다. 그는 비록 금메달 약속을 미뤄야 했지만 2회 연속 패럴림픽 태권도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냈다. 한국 장애인 태권도 간판인 주 선수는 "할머니가 건강하셨을 때 이런 모습을 보여 드리지 못한 게 참 아쉽다"며 "사실 이번 대회를 마치고 은퇴하려 했는데 '2028 로스앤젤레스 대회'까지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회를 마치고 귀국하면 동메달을 목에 걸고 소고기를 챙겨 할머니 산소를 찾을 계획이다.

# 당당하게

## 종교와 삶

전재경  
육군51보병사단 군중참모부  
대위·신부



“  
당당하면서도  
무례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국군 장병들로 거듭나길  
”

입니다. 소위 말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인간이 죄를 짓는 부분과 더불어 죄에서 벗어나 당당해지는 일화가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창조주께서도 인간들이 당당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움츠러들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야말로 당당함과 거리가 멀어지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죄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희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엔 조건이 하나 없습니다. 무례해선 안 됩니다. 우리 각자의 당당함을 논할 때, 예를 갖춰 남을 돌보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

습니다. 이러한 연유에서인지 성경 곳곳에 죄에서 벗어난 당당한 삶, 소위 말하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첫 대목인 '창세기'는 인간이 저지른 첫 죄의 모습과 그 죄의 반응으로 아담·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뒤 숨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신의 당당함을 드러내는 이는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만 사랑하기에 그분 앞에선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숨으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실로 당당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생각해 봅시다.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진정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들은 사랑해야 할 때 움츠러들지 않고 또 숨지도 않습니다. 이 글을 써 내려가면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당당하면서 무례하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배워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진정 힘차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이 희망으로 가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희망을 바라보고 전하며 살아가는 '당당하면서도 무례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국군 장병들로 거듭나길 소망하며 오늘도 기도합니다.